

■ 韓·日 농업지역 전남·아키타현 주민생활 비교해 보니...

같은 농사 짓고도 '삶의 질'은 큰 차

아키타현, 연소득 6,460만원 ... 전남 농가와 배 차이

양지역 고령화 심화 ... 전남 의료서비스 수준도 뒤져

■전남과 아키타현 비교

	전남	아키타현
인구	185만명	115만명
면적	12,073㎢	11,612㎢
GRDP	40.9조원	3.7조원
농업비중	10.8%	3.2%



아키타현이 각각 99.4%, 52.3%로 두 배 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같은 경제력 차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갈라뒀다. 현재 전남의 의사 1인당 인구는 988명으로, 아키타현(512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두 지역 모두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대여명 역시 전남(77.7세)이 아키타현(80.6세)에 비해 짧다. 각종 사회안전 지표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2005년 전남의 1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405건으로, 아키타현(75건)의 5.4배에 달한다. 또 1만명당 교통사고 및 화재건수도 전남이 각각 13배, 1.7배에 육박해 양 지역민들의 '삶의 질'의 격차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농가당 경지면적 확대 및 기업형 전업농 육성 등 농업생산성 향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수축산물 가공산업,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 등 농외수익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농도인 전남지역과 일본의 대표적 농업지역인 아키타현 주민들의 '삶의 질'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교 자체가 어렵다. 아키타현의 농가소득은 일본 도시근로자보다 높아 소득이나 자산, 부채 등 농가경제력에서 전남을 서너 배 앞지르고 있다. 아키타현은 전남보다 의사수도 많고 범죄·교통사고·화재발생건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 같은 농사를 짓고도 이처럼 '삶의 질'이 다른 것은 바로 소득차에서 기인했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한·일 농촌간 삶의 질 비교분석(전남과 아키타현을 중심으로)' 결과에서 나타났다.

2005년 현재 전남 농가의 연소득은 2천705만원. 아키타현(6천460만원·이하 현재환율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아키타현의 경우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5천58만원)에 비해 27.8%나 높다. 연소득의 차이는 자연히 농가 자산 축적의 규모도 직결되고 있다. 아키타현 농가의 평균 금융자산 규모는 1억5천297만원으로, 전남(4천423만원)의 3.5배 수준이다. 특히 전남은 평균 농가부채가 2005년 현재 2천690만원에 달한다. 이는 1995년(720만원) 이후 10년간 3.7배나 불어난 것이다. 반면 아키타현은 1995년 이후 부채규모가 20% 느는 데 그쳤다. 두 곳 모두 농업이 주업인 데도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전남과 아

농가 66% "연간 판매 1천만원 미만"

통계청, 2007 농어업 기본통계조사
쌀농가 비중 절반 이하로
농가 인구 35% 65세 이상

만~3천만원 미만 23.0% ▲3천만~5천만원미만 6.3% ▲5천만원 이상 4.8% 등으로 집계됐다. 농가의 91.7%(112만9천가구)는 경지 면적이 3.0ha(약 9천평)미만이고, 0.5ha(약 1천500평)미만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도 39.8%(49만가구)에 달했다. 경지면적별 비중은 2006년과 거의 같았다. 영농형태별로는 논벼(쌀)농사를 짓는 가구의 비중이 49.6%로 여전히 가장 컸으나, 1년전의 51.3%보다 1.7%포인트 더 떨어져 사상 처음 절반을 밑돌았다. 쌀 농사를 제외하고는 채소(21.5%), 과수(11.7%), 축산(6.5%), 일반 밭작물(6.3%), 특용작물(3.0%), 화훼(0.9%) 등의 순이었다. 과수와 채소, 축산 등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전체 농가 가운데 오직 농사만 짓는 전업농가는 75만5천가구로 1년사이 3.8% 줄었고, 비중 역시 63%에서 61.4%로 떨어졌다. 반면 다른 일을 겸한다는 농가 수는 46만가구에서 47만6천가구로 3.4% 늘었다. 전체 농가 수와 농가인구는 각각 123만1천가구, 327만4천명으로 1년전보다 1.1%, 0.9%씩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 비중이 51.4%로 절반을 넘었다.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고령화율)은 32.1%로 2006년의 30.8%보다 더 높아져 전국인구 고령화율(9.9%)을 22% 포인트 이상 웃돌았다.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어가수는 7만3천934가구로 전년보다 4.0%(3천67가구) 줄었다. /연합뉴스

농가 열 집 가운데 일곱 집은 한해 농축산물 판매액이 1천만원을 밑돌고, 네 집은 0.5ha도 안되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 등 '자급자족형' 소규모 영세농의 비중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쌀 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벼농사를 짓는 가구의 비중이 마침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농어촌의 고령화도 계속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07 농어업 기본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123만1천농가 가운데 연간 농축산물 판매 규모가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은 65.8%, 81만가구에 달했다. 반면 4.8%, 5만9천가구는 한해 5천만원이상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2006년과 비교하면 1천만원미만 농가와 5천만원이상 농가 수는 각각 0.3%, 6.0% 늘었다. 세부 비중은 ▲50만원 미만 18.3% ▲50만~100만원 미만 6.8% ▲100만~1천만원 미만 40.7% ▲1천

존경받는 기업 1위 '금호고속'

금호고속이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조사한 '산업별 존경받는 1위 기업' 고속버스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혁신능력, 주주 가치, 직원 가치, 고객 가치, 사회 가치, 이미지 가치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56개 산업군에서 1위 기업을 선정했다. 금호고속이 선정된 것은 안전운행, 고객만족, 윤리경영 등을 적극 실천한데 힘입은 바 크다.

업계 최초로 예방정비시스템을 도입해 운행도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제기된 고객민원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회신해줘 고객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있다. 한편, 산업별 존경받는 1위 기업 렌터카 부문에서는 금호렌터카가 선정됐다. /이종태기자 jitee@

산학협동 유공자 3년간 경영 지원

한국산학협동연구원

한국산학협동연구원(원장 박성수)이 20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제 62회 산학협동포럼과 제 4회 산학협동대상 시상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운방부 연세대의 과대학 교수가 '건강한 인생, 성공한 인생'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산학협동대상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산학협동 실적이 두드러진 모범 유공업체와 유공자를 선정, 포상한다.

수상기관(자)에게는 3년간 각종 경영자문 무료지원, 광주은행 대출금리 우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수상기관(자)는 ▲기업부문 대상=김보관(디케이산업 대표) ▲자문 교수부문 대상=박형구(전남대 교수) ▲유관기관부문 대상=이형경(광주시 산학협력관) ▲산업인력양성부문 대상=김일두(광컴직업전문학교 이사장)씨 등.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SMT/PCB NEPCON(국제 표면실장 및 인쇄회로기판 생산기자재전)에 물린 관람객들이 최신 전자부품 생산기자재와 표면실장용 장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첨단 업체 올 경기전망 '낙관'

1분기 BSI 전망치 143 전국에서 가장 높아

광주 첨단산업 입주업체들은 국내 경기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 전망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단)이 발표한 2008년 1/4분기 국가산단 기업체감경기 조사분석 결과

광주 첨단산단의 BSI 전망치가 143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기준치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 첨단산단의 BSI 전망치는 대불산단(122)과 여수산단(114) 등 전남 지역의 산업단지치는 물론 서울디지털산단(110), 창원공단(111), 반월·시화공단(101) 등에 비해서도 높았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08년 국가산단 생산·수출·고용계획에서도 광주 첨단산단 입주 업체들은 모든 부문에서 전년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영기기자 penfoot@

금호렌터카 中 선전에도 진출

6개 영업망 확보 ... 2010년 차량 1만대

금호렌터카(대표 이상삼)가 20일 중국 선전에 진출했다. 금호렌터카는 이날 이상삼 대표와 중국 현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전에서 개업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2005년 업계 최초로 중국 베이징에 진출한 금호렌터카는 홍콩과 대만 등지를 제외한 광둥·광저우·옌타이 지역에 추가로 진출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이로써 금호렌터카는 베이징·칭다오·선양·웨이하이·다롄에 이어 중국에 모두 6개의 영업망을 확보했으며, 현재 중국내 1천여대의 차량규모를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 1만대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금호렌터카 관계자는 "선전에 이어 올해 안에 상하이·톈진·광저우·옌타이 지역에 추가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광주지역 창업 활기

어음부도율은 증가

2002년 이후 내리막을 걸던 광주지역의 신설법인 수가 지난해 첫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창업이 활기를 띠었으나, 어음 부도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지역의 신설법인 수는 1천581개로 2006년 1천335개에 비해 246개(18.4%) 늘었다. 또 부도업체 수가 131개에서 110개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액이 1천426억 원에서 1천519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어음부도율이 0.57%로 2006년도에 비해 0.03%p 올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SONY
BRAVIA
Sony Family
062-522-2000

청하
대·소연회 / 상견례 / 각종 모임 및 집회
단체환영 / 주차장완비
223-7037 / 224-5002